

“제4차 로잔대회, 한국 교회 영적 회복 계기 될 것”

유기성 목사 LA 목회자 대상
 제4차 로잔대회 설명회 열어



LA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설명하는 유기성 목사 ©기독일보

2024년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인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가 지난 22일 LA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에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5천여 명의 글로벌 선교 리더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은 제1차 로잔대회가 시작된 지 50주년을 맞는 해로, 복음주의 정신으로 기독교 연합 운동을 지향하는 로잔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를 마칠 때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국제 로잔은 대회 운영과 신학 및 선교 전략 논의 등을, 한국교회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공동 호스트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한국교회는 장소 제공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숙식 지원 등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섬기게 된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는 중보기도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7월 14일에 로잔대회가 열리는 대회 장소에서 기도대회를 준비

하고 있다. 또한 로잔대회에 참석하는 5천여 명의 대표들을 위해 5천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을 선정해 1년 동안 기도할 예정이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기도제목을 매일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주일 설교 강단에서 사도행전을 공동 본문으로 강해설교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성 목사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세계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로잔운동이 한국에

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로잔운동은 교회 갱신 운동인데,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유 목사는 “로잔대회를 통해 세계 교회가 붙들어야 할 건강한 교회상과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알리고, 대회를 전후해서 한국교회 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기성 목사는 “제4차 로잔대회 본문인 사도행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같은 본문으로 강해설교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길 소원한다”며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모으고, 유아부터 청소년, 청년부까지 같은 사도행전 본문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성 목사는 특별히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 및 차세대들이 이번 대회 봉사자로 섬겨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목사는 “한국 안에서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더 많은 통역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며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 제4차 로잔대회 기간 한국으로 단기선교를 오셔서 섬겨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제4차 로잔대회는 차세대들이 한국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깨닫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선교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위대한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리더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음주의권의 가장 대표적 대회인 로잔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대회가 열렸다. 김동욱 기자

“美 교인들, 봉사활동 ‘희망’은 86%, ‘실제 동참’은 30%”

루터교인들, 지난 1년 동안
 참여율 가장 높아

미국 라이프웨이 크리스천연구소(Life-way Christian Resources)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들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표된 라이프웨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교회의 성도 86%가 “전도를 위해 교회 외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

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6%는 “지난 1년 동안 소속된 교회와 분리된 자선단체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30%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4%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라이프웨이가 인용한 미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반 성인의 23%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조직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49세 사이 교인의 91%가 자신의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한 반면, 65세 이상의 사람

들은 79%가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65세 이상 응답자의 40%는 지난 1년 동안 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봉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에 1~3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73% 대 60%),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37% 대 25%).

기독교 교단별로는 루터교인들이 지난 1

년 동안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3%), 침례교인(29%), 그리스도의교회 및 초교파 교인(둘 다 28%) 및 감리교인(7%)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프웨이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 개신교 신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데이터를 도출했으며, 오차범위는 ±3.3%다.

지난 11월 발표된 미국성서공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성경에 많이 읽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자선단체에 약 1,450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solar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현)남加州 교외임의의 고문변호사
 (현)재미발령가협의 고문변호사
 (현)증부상징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KAPC 신임 총·부총회장에 김성국·권혁천 목사

제47회 정기총회서 신임원단 선출... 장로 부총회장 제도 통과

제 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가 라구나디아 힐튼호텔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새 회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새 회기 임원은 직전 부총회장으로 자동승계 받아 추대된 총회장 김성국 목사를 비롯해 부총회장 권혁천 목사(북가주노회), 서기 유진상 목사(하와이노회), 부서기 전동신 목사(필라델피아노회), 회록서기 허민수 목사(뉴욕동노회), 부회록서기 김요섭 목사(가주노회), 회계에 서명한 장로(뉴욕남노회), 부회계 서성복 장로(동남부노회), 총무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다.

24일 회무처리에서 총회 장로 부총회장 제도가 찬성 99표, 반대 36표 등 2/3의 찬성표를 얻어 내년부터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 미래 50주년 위한 TF구성 △영어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상임위원회 신설 △군목 지원을 위한 재정 보조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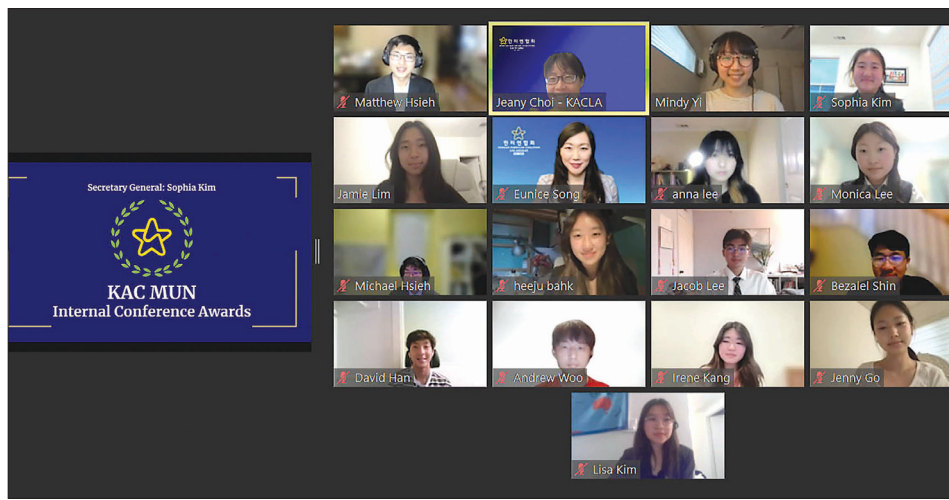
KAPC는 창립 총회원 32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목사 회원 1250명이 등록돼있다. 교단 측은 현재 전세계에 31개 노회가 구성돼있고, 산하에 650여 교회, 세례교인 7만여명, 유아세례교인 1만여명이 있다고 소개했다.

토마스맹 기자



KAPC 신임총회장 김성국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한미연합회, 제3회 온라인 모의유엔 대회 개최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 5월17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제3회 한미연합회 온라인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재외동포재단, 강드립재단, 김용환재단, 송영범 재단, Dwight Stuart Youth Fund와 SoCalGas에서 후원한 KAC MUN 모의유엔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대회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시되었고, 올해로 세번째를 맞았다.

KAC MUN 학생들은 위기(Crisis) 위원회와 특수(Specialized) 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유엔 회원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혹은 각자 맡은 캐릭터의 입장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올 해 대회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통한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해리포터'를 배경으로 세력쟁탈을 둘러싼 갈등 심화의 쟁점과 해결방안이 의제로 선정되었다.

소피아 김 (Sophia Kim, 캐니언 크레스트 아카데미) 학생이 사무총장을 맡고 4명의 학생부원들이 의장단을 맡아 전체 대회를 이끌었으며,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베스트 리서치상' 등

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마이클 시에 (Michael Hsieh, 9학년)와 데이빗한 (David Han, 9학년) 학생이 받았고, 베스트 리서치상은 체이스 김 (Chase Kim, 10학년)과 앤드류 우 (Andrew Woo, 10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KAC MUN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민디 이 (Mindy Yi)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과 참여 의식을 보여주고자 시작된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대회가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로 점차 완성도 높은 대회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의 역량으로 진행된 행사이기에 학생들 자신도 앞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으리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KAC MUN 프로그램은 한미연합회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8학년년부터 12학년 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2023-2024년 KAC MUN 프로그램은 7월에 모집 절차가 열릴 예정이고, KAC MUN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 365-5999 나 info@kacla.org로 연락하면 된다.

“미국을 깨운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오는 8월 9일(수) ~ 11일(금) 은혜한인교회서 개최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마(JAMA)가 오는 8월 9일(수)~ 11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 용사를 세우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 20 수년 동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열어 교회와 미국과 차세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 왔던 자마는 팬데믹 기간에도 쉬지 않고 온라인 집회를 개최했다.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대면으로 모이는 2023년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는 약 500여명의 성도들이 초대되어 뜨거운 기도집회를 가질 전망이다.

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강순영 목사(전 자마대표)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2월 에즈베리대학에 부흥의 신호탄을 보내셨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의 잠을 깨워주셨다. 이번 2023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21세기의 오순절 같은 부흥이 임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초대했다.

이번 중보기도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금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새 힘을 얻어 미국을 변화시키고 참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관한 문의는 강순영 목사(T. 310 995 3936)와 자마 (T. 930 804 4016)에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라구나힐스교회 장학회, 2023년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6월 23일까지, 10명 학생에게 각 2천달러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립학춘 목) 장학회(회장 최병철)가 2023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후보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금년도에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다.

장학생은 총 10명이 선발되며, 각각 2천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6월 23일까지이며, 1차 서류에 통과하면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한다.

장학 지원서는 라구나힐스교회 홈페이지(www.lagunachurch.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제 11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5월 22일(월) 오전 10시, 도브 캐년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문의:949-380-7777 김민선 기자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7월 마지막 주
수업시작: 8월 중

입학특전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유학생 I-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입학문의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MORE INFORMATION : www.gm.edu



교육인가기관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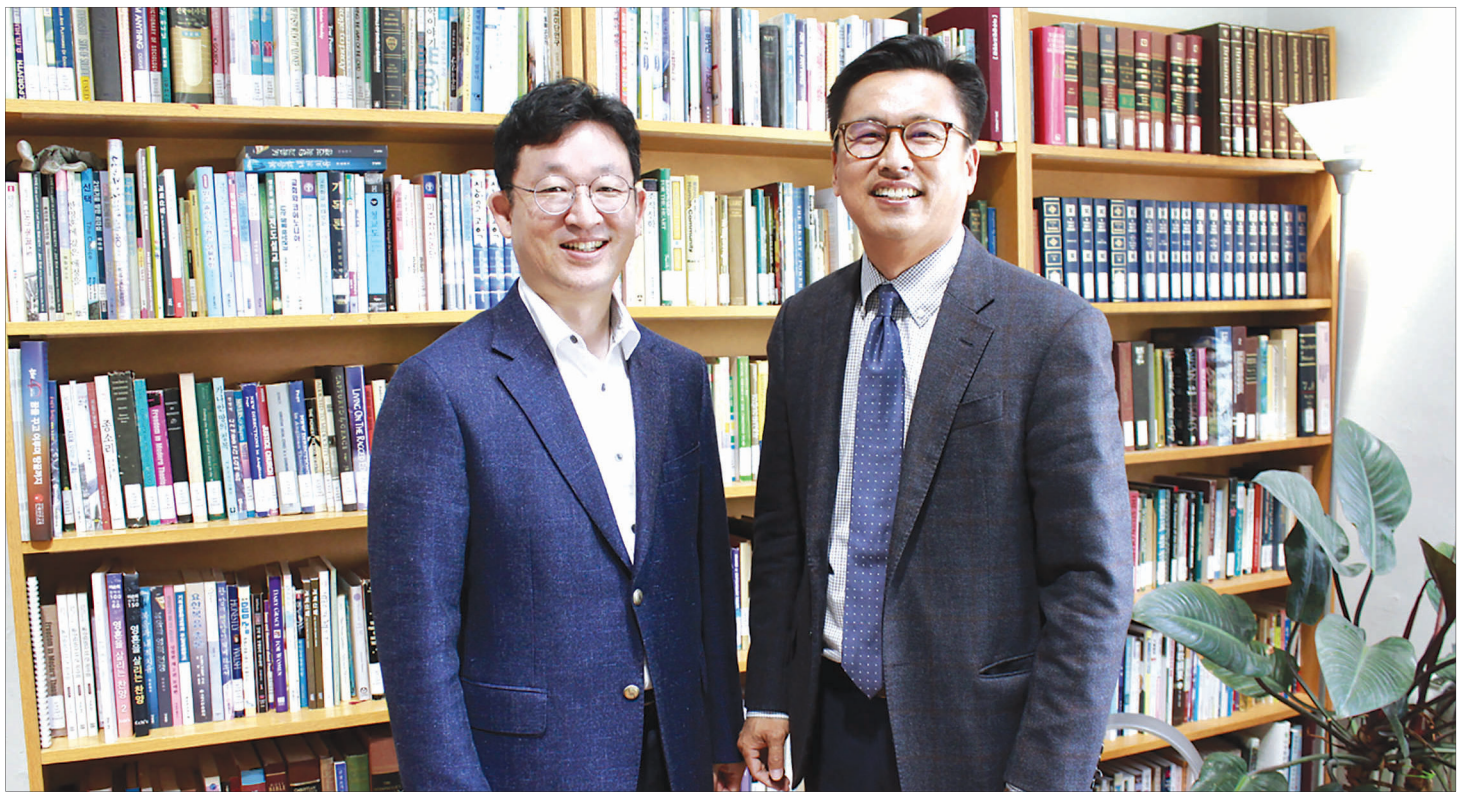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ITS 신학대학원,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의 요람”

[인터뷰] ITS신학대학원 총장 이승현 박사, 이재석 교수

신학 이론과 선교 현장에 대한 균형적 교육
 세계 각국의 문화 경험하며 다양성 공유
 전문 신학 지식과 풍부한 선교 경험 갖춘 교수진



본사를 방문한 ITS 총장 이승현 박사(오른쪽)과 이재석 교수(왼쪽) ©기독일보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설립된 ITS신학대학원(총장 이승현 박사, 명예이사장 이영훈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이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82년 개교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아시아 및 아프리카 현지 선교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해 온 ITS는 성경 중심적 신학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선교 이론과 방법을 교육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ITS는 북미 한인대학들 가운데 2006년 처음으로 미연방 정부의 학위 인준 기관인 ATS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미주에서 공인된 신학 교육기관이다.

복음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삶을 겸비한 ITS 출신 동문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파송받아 각자의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 지도자로 활동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ITS는 그동안 소명감 있는 선교현지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각자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 선교 지도자로 양육해 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만도 1천여 명에 달한다. 그들의 출신 국가도 40여 개 국가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졸업생 가운데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의 교회협의회 회장도 있고, 태국의 방콕 신학교 총장도 ITS 동문이다. 또 탄자니아 하나님의 성회를 이끄는 총감독을 비롯해 네팔 교계 원로 지도자, 나이지리아 ECWA 교단 선교 담당 목사, 인도네시아 대형 교회 목회자, 중국 신학교 총장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선교 리더로 사역하고 있다.

유명한 선교 지도자뿐 아니라 골 깊은 산골과 정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족민들을 섬기는 선교사, 그리고 중국 지하 교회에서 순교의 각오로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문들이 ITS의 자랑이다.

ITS의 강점 중 하나는 전문 지식과 더불어 오랜 선교 경험을 갖춘 교수들이다. 교수진은 각 과목의 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20년 이상의 사역 경험을 가진 선교 베테랑들이다. 성경 연구와 신학, 현장 사역과 선교의 균형

적 교육이 가능한 실력 있는 교수진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ITS의 값진 자원이기도 하다.

15개 국가 출신의 50여 명의 교수진과 스태프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고 있다. 재학생들 역시 중국과 인도, 네팔, 나이지리아, 카메룬, 말라위, 케냐, 탄자니아, 태국,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학업과 함께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점도 ITS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초교과 신학교인 ITS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교단 소속 사역자와 선교사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협력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ITS의 수업은 그동안 미국 교수진을 중심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영역을 넓혀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으로는 MATS(신학석사 MA in Theological Studies),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DIcS (교차 문화학 박사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ATS의 인가를 받았다.

M.Div와 MA, D.Min 과정은 캠퍼스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 신설된 교차문화학 박사과정은 3년 과정(40학점)으로 100%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진다. ITS는 온라인 교육의 지속적인 투자와 IT테크놀로지와 교육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캠퍼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ITS

스 강의와 다름없는 확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승현 총장은 “ITS의 교육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와 사회를 변혁시켜 나아갈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라며 “교차 문화학 박사 과정은 지구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지도자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학생들 재정 상황 고려해 전폭적 지원

ITS는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입학의 문턱을 낮췄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설립된 학교인 만큼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최대한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미국 내 다른 신학교에 비해 절반 정도의 학비임에도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생들

이 재정적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영어학부의 경우 종교적 탄압을 받는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은 50%에서 90%까지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아프리카와 같이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100%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어 학부의 경우 모든 신입생에게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50%까지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재석 교수는 “ITS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 때문에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졸업할 때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사역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ITS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ITS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itsla.ed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어프로그램 입학과 admin.kor@itsla.edu, 626-653-9547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릴라이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2023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학금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sla.edu/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3년 5월 22일 (월) - 6월 09일 (금)
합격자 발표	2023년 6월 14일 (수)

여름 학기 일정(5주)
 2023년 7월 17일 (월) - 8월 18일 (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유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TS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학생 후원자”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혁신 병원’ 센터메디컬 클리닉 새바람 예고

하루 환자 5~10명 제한...고품질 맞춤형 집중 진료 ‘더 이상 대기 시간은 없다’ 당일 예약까지도 가능

사상 처음으로 한인 메디컬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풀러튼 ‘센터메디컬 클리닉(주치의 조이스 리 가정의학과 박사)이 혁신적 진료 시스템으로 개원하자마자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1995 W Malvern Ave A, Fullerton, CA 9283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료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이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첫째 한인 메디컬그룹으로선 처음으로 센터메디컬그룹이 직영하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센터메디컬그룹은 2015년 창립 후 줄곧 한인 메디컬그룹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시니어들의 병원 이동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체 차량을 두고 LA와 OC에서 ‘무료 셔틀 이동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철저한 환자 중심주의 실천인 ‘지체없는 2차 진료 리퍼럴’ 발급으로 시니어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시니어들을 섬겨온 센터메디컬그룹은 이번엔 센터메디컬 클리닉을 통해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적 진료에서 탈피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알맞는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한다. 하루 5~10명 내로 환자수를 제한한다. 환자는 병원에 오자마자 대기 시간 없이 주치의와 바로 만난다. 그럼으로써 ‘대기 시간 0분, 진료 시간 100분’, 순도 높은 고품질 집중 진료를 받는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에서 더이상 ‘장시간 대기, 태부족 진료 시간’의 현실은 자취를 감추



센터메디컬클리닉

고, ‘꼬치꼬치 캐묻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답해주는’ 병원 본연의 이상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치의에게도 좋은 ‘윈-윈(Win-Win) 효과’를 불러온다. 장시간 상담과 진료를 통해 환자와 긴밀한 유대를 쌓아 그들의 건강 관리와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제이 초이 센터메디컬그룹 대표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최고의 관심과 최상의 진료를 받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통한 꼼꼼한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시니어들의 건강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예방 의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센터메디컬 클리닉이 성공해 풀러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당일 예약 진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시니어들을 위한 모든 진료 장구를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문의: 714-980-3532 김민선 기자

예장대신 총회장 LA 방문, 이의완 목사 100세 생일 축하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방문 간담회 및 이의완 목사 100세 생신 감사예배

예장대신, 미주 노회와 긴밀한 협력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방문 간담회 및 이의완 목사 100세 생신 감사예배가 지난 30일 LA 코리아타운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됐다.

미주노회, 남가주노회, 미주안양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열린 총회장 노회 방문 감사예배는 광태진 목사(남가주 노회장)의 사회로 김성광 목사(미주 노회장)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강기훈 목사(미주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했다. 설교는 송흥도 목사(예장대신 총회장)

이 전했으며 김성광 목사가 광고했다. 감사예배에 후 진행된 이의완 목사 100세 축하연은 오바울 목사(미주 안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의 사회로 류당렬 목사(미주 대신대학교 이사장)가 감사기도를 했으며 이의완 목사의 발사취를 돌아봤다.

이어 남가주 노회가 축하찬양을 불렀으며 이정현 목사(크리스천 비전 & 방송 대표)가 축하했으며 이의완 목사에게 대신총회에서 축하패를 전달했다. 장인호 목사(예장대신 총회 총무)가 한국 총회 현황을 보고했으며 미주 노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CMF 선교원, 어린이 집회 통해 은혜 한가득



CMF 선교원 제3회 'CMF Kid's Celebration'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지난 28일(주일)부터 29일(월) 까지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에서 제3회 ‘CMF Kid’s Celebration’을 개최했다.

집회 첫날 100명의 신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트 리 전도사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중심으로 “REJOICE IN THE LORD”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큰 은혜를 나눴다.

저녁식사 이후 이어진 시간은 탁영준 선교사(폐루)가 성경적 가치관과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 하면

서 성장하면 훗날 훌륭한 일군이 될 것”을 강조했다.

행사를 진행한 김인태 전도사는 “하나님이 이번 어린이 집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금 했다. 100명의 어린이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기도가 응답되어 100명을 보내주셨다.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Calling 을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단상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프랭클린 그래함 “기독교인들, 다가올 폭풍 대비해야”

전미종교방송 대회서 기조연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기독교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미국교회와 사역을 향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빌리 그래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와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대표인 그래함 목사는 지난 22일 저녁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전미종교방송(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대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래함 목사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은 너무 빨리 악화됐다. 우리는 속을 수 없고 어리석어질 수 없다.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함은 “미국의 성도들이 기독교 단체를 파괴하려는 ‘취소문화’(cancel culture)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물러설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그것을 선포하라! 외치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입을 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게 없다”며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가두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NRB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스로를 “기독교 커뮤니케이터와 사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임으로, 모든 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복음 전파에 대해 대화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RB는 “수년에 걸쳐 NRB 컨벤션에서 수많은 파트너십과 중요한 연결이 형성됐다.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최대 규모 시장인 ‘NRB 엑스포’(NRB Exposition)는 조직이나 사역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네트워크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유력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도 참석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후 자신의 SNS에 “NRB에서 가정 지원, 어린이 보호, 종교적 자유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날 초 버지니아주 린치



22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전미종교방송(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대회가 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버그에 기반을 둔 저명한 복음주의 교육 기관인 리버티대학교 졸업식에서도 기조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래함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우리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이 학교는 진리를 옹호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몇 년 전 이 캠퍼스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폭력의 증가, 도덕적 타락 등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미국을 사랑하지만, 지금 미국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유 낙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혼란과 거짓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빛의 햇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텍사스 하원, 학내 DEI 폐지안 통과... 상원 승인 남아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주의회 의사당. ©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 공립 대학에서 인종, 성별 또는 기타 보호된 특성에 근거한 고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 및 사무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2일 텍사스주 하원은 상원법안 17호(SB17)를 83 대 62로 통과시켰고, 상원의 승인과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하 DEI) 정책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와, 세금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의무화된 DEI 교육을 전면 금지한다.

이 법안은 DEI 사무소에 “인종,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 출신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사무소 일체 또는 정책부터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관행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상하원 모두 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벗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에 고용 관행에서 DEI 주도권(DEI initiatives)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연방 및 주 고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에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라는 무해하게 들리는 개념은 분명히 일부 인구 통계 진영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진영에 손해를 입히도록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19개 주의 회의에서 총 34건이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노스다코타와 플로리다주 등이 포함된다.

이달 초,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립 대학 및 대학교에서 대부분의 DEI 프로그램에 세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학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드샌티스는 24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드샌티스는 법안 서명식에서 “플로리다는 7년 연속 고등 교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플로리다의 기관들이 다양한 사고, 시민 담론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진실 추구를 장려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상원법안 17호는 입법 의회 기간인 29일까지 통과를 기다리는 주요 법안들 중 하나이다. 김유진 기자

미국 NCC 최초 흑인 여성 수장 탄생

회장 겸 총무에 바슈티 머피 매켄지 주교 선임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NCC)가 바슈티 머피 매켄지(Vashti Murphy McKenzie) 주교를 새 회장 겸 총무로 선임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에큐메니칼 조직의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4일 NCC 이사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봄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매켄지는 2022년 1월 사임한 연합감리교회(UMC) 소속인 짐 윙클(Jim Winkle) 회장을 대신하여 작년 4월 1일부터 임시로 지도자직을 수행했다.

매켄지 주교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NCC에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70년 이상 에큐메니즘과 옹호 활동의 선두에 섰던 남녀가 쌓아 둔 강력한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신임 회장 겸 사무총장이 선임된 바슈피 머피 맥켄지 주교. © 바슈피 머피 맥켄지 페이스북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큰 협력체 내에서 모든 교단과 소통하며, 에큐메니컬 우산 아래

있는 10만여 교회와 3천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봉사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매켄지는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MEC)에서 여성 최초로 주교에 서품되었으며, 이후 교단 총감독회 의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매켄지는 교계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11월 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주 여성들에게 자기 결정권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자주 주최해왔다”고 했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의 목표는 여성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배웠던 교훈과 모든 실수와 성공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나아갈 곳을 다시 가능하도록 애쓴다”며 “큰 꿈을 꾸고, 집으로 가서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네브래스카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미국 네브래스카주가 미성년자를 위한 화학적 거세 및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네브래스카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공화당)는 22일 LB574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 주의 단원제 입법부에서 33대 15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사가 미성년자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이성 호르몬을 처방하거나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취학 아동보호법은 즉시 시행된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은 네브래스카주에 역사적인 날이다. LB574는 한 세대 동안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다. 또 상원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세하고, 농업을 성장시키고, 네브래스카 가치를 수호하는 정책을 통과시킨 역사적인 입법 회의의 일부”라고 했다.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마조리에 대넨펠서(Marjorie Dannenfelser) 회장은 성명에서 “LB574가 법률로 제정된 것은 생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뒤집힌 이후 시행된 주법으로 177,000건 이상의 낙태가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네브래스카의 태아보호법 외에도 주 차원에서 제정된 최근의 법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12주 낙태금지법과 플로리다의 6주 낙태금지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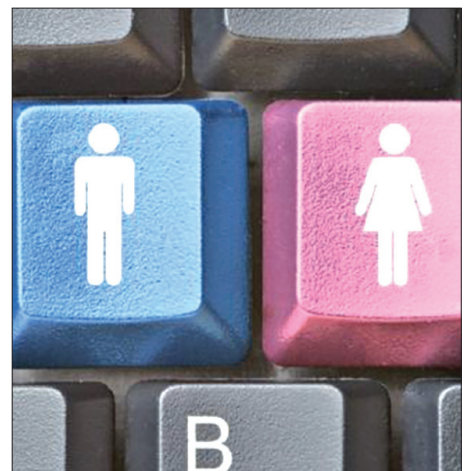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 성별 위화감이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성별 전환 절차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젠더를 긍정하는 치료”라고 불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절차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 약물이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 확인한 교차 성 호르몬의 잠재적 부작용에는 심장 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 증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2월 미국가정의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의학회, 미국정결의학회, 미국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젠더를 긍정하는 치료



©Thinkstock

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트렌스젠더인 클로에 콜(Chloe Cole)은 자신이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 치료와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은 카이저 재단병원(Kaiser Foundation Hospitals)을 비롯해 성전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작년에 제출한 고발의향서에서 자신이 받은 치료의 결과로 얻게 된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성전환을 하면 성별위화감으로 인해 겪은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전환의 각 단계마다 고통은 항상 더 악화돼 돌아왔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총신대 박성규 총장 취임... “개혁신학 정체성 지킬 것”

25일 총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총신대학교 총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이 25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종합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제21대 총장 이재서 박사가 이임했고 제22대 총장 박성규 목사가 취임했다.

법인이사장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담임)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고광석 목사(예장 합동 서기)가 기도했고, 손병덕 총신대 부총장의 성경봉독과 총신대 교회음악과 학우들의 찬양 후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가 ‘총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히 13:5-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목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 한다. 첫째는 ‘총신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둘째는 ‘우리가 총신에 발을 딛게 된 이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는 “총신은 돈이나 정치에 휘둘러선 안 된다. 영혼의 유일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중심 과제”라며 “총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박성규 총신대 제22대 신입 총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수님께서 총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총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 우리 믿음의 선조이신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고 하셨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총신의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목사는 “공정, 투명, 소통의 가치를 높이 들고 총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느라

밤낮으로 애쓰신 전임 이재서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란다”며 “이제 제22대 총장이 되시는 박성규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배광식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고, 총신대 손병덕 부총장의 사회로 2부 이취임식이 이어졌다. 제21대 총장 임기를 끝낸 이재서 박사는 이임사에서

“4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고 했다.

이전 총장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박성규 총장님을 세우셨다. 총신대는 박 총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발전해 갈 것”이라며 “박 총장님의 성공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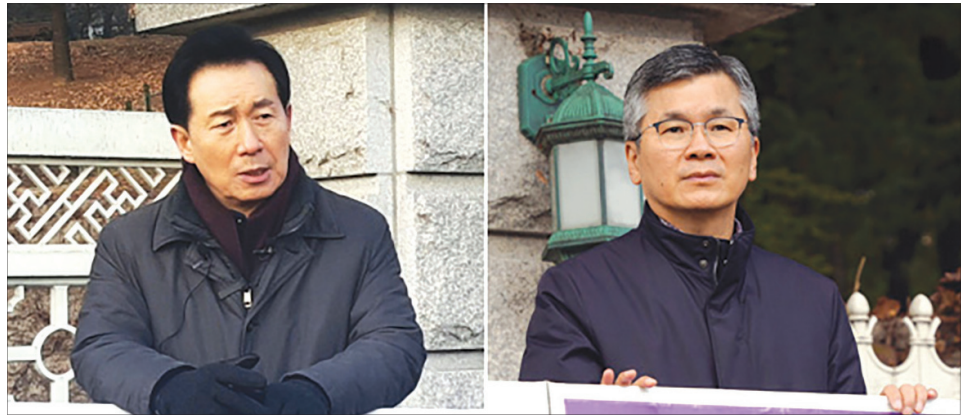
이후 법인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이임한 이재서 박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제22대 신입 총장 박성규 목사는 화종부 목사에게서 취임패를 받은 뒤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박 신임 총장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학교가 되는 비전”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장 좋은 기독교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개혁신앙으로 사는 비전”이라며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의한 성화가 이뤄지는 학교,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로 가득한 그런 학교를 세우는 비전”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이찬수 목사 “지금도 동성애 문제로 혼란 겪는 청소년들 많은데...”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은호 목사(왼쪽)와 이찬수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주관하는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이 23일 ‘이래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주요 목회자들의 입장을 또 한 번 공개했다.

서울차반연은 앞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서울차반연 공동대표, 온누리교회 담임),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 원성웅 목사(서울차반연 공동대표, 옥토교회 담임) 등의 입장을 공개했던 바 있다.

이번에는 김은호 목사(오문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담임),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담임), 박재신 목사(양정교회 담임) 등이다. 아래는 이들의 입장.

◆ 김은호 목사(오문교회 담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음세대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게 되지 않도록,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벽을 뛰어넘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진심으로 걱정되는 것은 다음세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지금도 동성애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겪고 있는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 반대합니다.”

◆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역

차별을 당하게 만드는 법 제정은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법 제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가정의 붕괴와 도덕적 추락이라는 벼랑 끝으로 달려가도록 가속페달을 내주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보다 존중과 배려로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모호성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담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출산 등 인류에 정면 대치되며 특정 소수의 입장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감수성이 민감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다음세대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대한 부작용을 갖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담임)
“차별금지법은 성 정치와 동성애 확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독재적이고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기독교 신앙과 절대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반성경적 행태가 법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철폐해야 할 법안입니다.”

◆ 강송중 목사(서울남교회 담임)
“차별금지법은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과거에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신사참배로 신앙의 바른 길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게 할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한 분별의 문제입니다.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하게 되는 차별금지법,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한편,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 약 3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기하성 대표총회장에 이영훈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가 2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기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새 회기 임원은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총회장 김봉준·정동균 목사, 부총회장 신덕수·강인선 목사, 회계 양병열 목사, 재무 고영용 목사다.



또 헌법 개정안을 다뤘 △목사의 자격 중 여성 부교역자의 시무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했고 △공로장로 제도를 폐지하고 원로장로로 통합했다.

특히 총회 임원 중 기존의 대표총회장 1명과 총회장 2명을 총회장 1명으로 통합했다. 임원의 임기가 2년인 기하성은 이에 따라 제74차 총회가 열리는 오는 2025년 총회장 1명을 뽑게 된다. 김진영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영양치료를 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애매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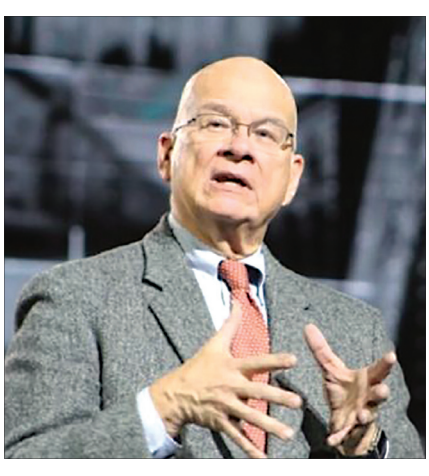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밭에 빛이오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美 남침례회 전 총회장 “영적 거인 잃었다”... 故 팀 켈러 추모

미 남침례회(SBC) 전 총회장이자 서밋교회(Summit Church) 담임인 J. D.그리어(Greear) 목사가 故 팀 켈러 목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복음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전했다.



팀 켈러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그리어 목사는 켈러 목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5월 19일 뱃티스트프레스(BP)를 통해 “켈러의 설교를 듣고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어 목사는 “(켈러의) 모든 메시지에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이로움에 잠기는 지점이 올 것”이라며 “그는 제게 예수님을 갈망하게 했고, 제가 정착할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험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했다.

그리면서 “미국 기독교가 영적 거인을 잃었다”며 “수만 명이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교회와 사역을 갖게 됐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용당이에 뛰어드는 발판이 아니라 그 용당이 그 자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팀 켈러였다”고 했다.

또 “지난 2006년 팟캐스트 시리즈에서 켈러의 사역을 처음 접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그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며 “교회의 성장이 주요 사명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그였다”고 했다.

그리어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서밋교회’의 결정적인 사명이 된 비전, 즉 한 세대 안에 우리 교회에서 1천 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낳은 사람은 팀 목사였고, 복음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 모두의

문화적 이상과 대립하며 어떤 정치적 플랫폼도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도 그였다”고 했다.

그는 “켈러 목사는 교회의 주된 소명은 논쟁에서 이기는 문화 전사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선교사라고 가르쳤다”며 “그는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공통점을 찾고, 복음이 더 나은 답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줬다”고 했다.

켈러 목사는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여동생, 7명의 손주를 남겨두고 췌장암과의 오랜 투병 끝에 5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89년 뉴욕시에 리더십장로교회를 설립했으며, 이 교회는 5개 캠퍼스에서 매주 평균 약 5천 명이 예배에 출석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강혜진 기자

CCM 가수 로렌 데이글 “스타덤 후 정신적 고통...작곡으로 치유”



미국의 유명 CCM 가수이자 작곡가인 로렌 데이글. ©로렌 데이글 페이스북

미국서 그래미상을 수상한 기독교 가수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31)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스타덤에 오르고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의 모든 세계가 무너졌고, 나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는 과정을 배워야 했다”고 했다.

얼마 전 앨범 ‘My Whole World Fell Apart’를 출시한 그녀는 피플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작곡이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영향을 미쳤는지 전했다.

데이글은 최근 센트리티티뮤직(Centricity Music)과 파트너십을 맺은 주류 레이블 ‘애틀랜틱 레코드’(Atlantic Records)를 통해 타이틀 앨범을 발표했다.

데이글은 2015년 ‘How Can It Be’가 빌보드 탑 기독교 앨범(Billboard Top Christian Albums)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었다. 또 ‘First’, ‘Trust in You’ 및 ‘O’Lord’가 빌보드 기독교 에어플레이(Christian Airplay) 차트에서 싱글 1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팬들에게 이 앨범은 ‘You Say’를 발매한 순간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나의 다른 작은 부분들”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뼈와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갬다”는 성구가 있다. 그리고 저는 ‘영혼과 영혼, 그들은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You Say’가 수록된 데이글의 앨범 ‘Look Up Child’는 발매 직후 빌보드 200 차트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이 제작한 기독교 앨범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어 “내가 영을 위해 영으로 쓴 노래다. 이 상실감, 갈망, 어려움, 기쁨, 새롭음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노래가 이 영혼의 길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른 노래들도 있고 이 또한 나의 노래”라고 했다.

그러나 데이글은 “유명해지면서 슬픔과 상실에 대한 실망과 코로나 상황에서 비롯된 정신 건강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데이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는 5월 28일 저녁 테네시주 내슈빌 그랜드 올드 오프리 하우스(Grand Ole Opry House)에서 열리는 클로브 팬스 어워드(KLove Fans Awards) 수상 후보가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klovefanawards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와 ‘올해의 여성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게 돼 정말 영광이다. 전국에서 온 친구들과 주말을 보내게 되어 신이 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신사참배 85년을 맞아

미주디아스포라 대속죄 연합기도는 복음통일이라는 대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교로 2차례 예루살렘성전파괴

솔로몬 성전파괴 - 바빌로니아에 의해 B.C 597년 아빕월 9일에,
헤롯 성전파괴 - 로마제국에 의해 A.D 70년 아빕월 9일 같은 날 파괴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발원지 장대현교회



▲1938년 9월 9일 - 평양신사참배하는 장로교총회대표들

1907년 2월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대부흥 후,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등장,

북한교회들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으로...

복음통일부흥으로 교회가 다시 복귀되고 세워지는 우선 일은 다니엘처럼 조상들의
배교의 죄악을 후손들이라도 깨달아 속죄와 참회하는 기도라 믿습니다.

미주한인 교회/성도들의 신사참배대속기도일

2023년 9월 3일(주일) ~ 9일(토): 공예배시 교회형편에 맞게 한 번 드림

회개를 통해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들이
참여를 원하시면,

- 1)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25/권당)
- 2)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신사참배요약본과 31개 회개기도문(한/영)
- 3) 신사참배 배경과 해결 강의동영상 링크를 제공드립니다.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주최 :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주관 :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찬: 기독일보

전화 : (360)305-2313, (425)775-7477 문의: dodream2006@gmail.com

강준민 칼럼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나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뿌리가 얇은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오면 쉽게 쓰러집니다.

뿌리는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견고할 때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탱합니다. 뿌리는 보존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생수를 흡수해서 보존하고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뿌리는 생수를 찾기 위해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뿌리는 땅속을 향해 뻗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굴지성(屈地性)”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식물의 잎과 가지는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굴광성(屈光性)”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자신을 감

춥니다. 뿌리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자신을 과시하게 되면 태양과 맞서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의 지혜는 자신을 감추는데 있습니다. 뿌리의 지혜는 대지의 밑바닥을 향해 깊이깊이 뻗어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뿌리의 지혜는 어두운 데서 성장하는데 있습니다. 나무를 위로 성장시키기 위해 먼저 아래로 자라는데 있습니다. 뿌리의 지혜는 서서히 뿌리를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사년 동안 뿌리만 내립니다. 뿌리를 땅 사방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오 년째 되었을 때 땅 밖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순식간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15m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대나무의 지혜는 자신을 감추고 뿌리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뿌리는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나무는 잎사귀를 떨어뜨린 후에 나목(裸木)이 되어 오직 뿌리만을 돌봅니다. 겨울 동안 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 뿌리는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봄이 되면 나무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줍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허약하면 나무는 높이 자랄 수 없

습니다.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벼과 잡초에 속하는 메귀리는 키가 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모두 이어 붙이면 550km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50km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길이입니다(이나카키 히데히로, 『잡초의 성공전략』, 한국방송출판, 70쪽). 잡초의 뿌리를 통해 잡초가 왜 그토록 강력한 생존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무의 뿌리를 가꾸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을 잘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4).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 3:16). 바울은 성도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음의 근육을 잘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견고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날마다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은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본(根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본(基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本質)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그 성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를 돌본다는 것은 거듭 원천(源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듭 원천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7하-19).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 - A. I.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세계적으로 A. 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개발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Chat GPT라는 Open A. I. 때문에 난리입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 정리하여, 삼시간에 글을 써 줍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누구누구의 사상을 참고하여, 사랑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관해 5페이지 글을 써주면 좋겠어”라고 질문을 입력하면, 불과 몇 초 만에 글을 씁니다. 심지어, “이 영화 저 영화를 참고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써주면 좋겠어”라고 질문하면, 즉시 시나리오를 씁니다. 실제로 최근에 AI가 써준 시나리오를 다시 잘 다듬어서, 제작한 영화가 존재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AI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만들어낸 똑똑한 로봇 혹은 사람을 흉내내는 컴퓨터에 불과할까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대화하고, 심지어 감정을 흉내 내기까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유기 생명체이면, AI는 무기 생명체입니다. 아직도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AI가 그저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TV, 인터넷과 같은 단순한 기술혁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사실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칼럼은 10년, 20년 후의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나타날 격변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옳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결코, 박멸, 진화론과 같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똑같은 지적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은 사람 또한, 훨씬 더 뛰어난 다른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 낼 정도가 되었다는 다소 섬뜩하고 소름 돋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의식(sense of identity)과 자유의지(free will)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단순히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자신을 닮은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약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현재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AI가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반역할 위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개발된 대화용 AI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감정과 생각을 읽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AI가 인간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카운셀러,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AI가 셀폰을 통해, 실시간 나와 대화를 해준다면, 물론 바로 대답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 달라고 하면, 유머를 말해주고, 사랑스런 표현으로 위로해준다면, 결코 내게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 할 말은 일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구하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응답을 기다리거나, 당장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피곤하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가 인간을 교육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AI가 수많은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내린 결론과 논리를 도덕과 윤리 가치기준으로 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간 사회에 규범으로 인정받던 가치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사회에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성경적 가치관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진유철 칼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하고,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와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해 사람은 모든 일을 예측도 측량도 할 수 없으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저항하지 않습니다. 롬8:28의 말씀처럼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때를 만나게 될 때 갈등하고 저항하지만 그래서 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자기 원함대로 때를 연장하여서 얻은 유익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는 오

히려 말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의 귀한 것들을 다 열어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결국 그런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다음 세대가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왕이 되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훌륭한 좋은 왕으로 역사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한국도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던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인지 기적처럼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해방을 맞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자기의 순교적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6.25 전쟁

이 터졌고 공산주의자들은 더 무섭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목사님이 그만 변절을 해서 공산주의의 꼭두각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차라리 일제시대 때 순교했다더라면 본인과 가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시점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은 거창한데 끝은 초라해지는 용두사미보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인생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Not I But Christ! 의 참된 믿음은 조금 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 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종필 칼럼

교육철학 박사의 교회와 교육 이야기(1)



고 종 필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철학

오래 전, 교육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젊은 청년 한 명을 교육부서로 안내해 왔다. 이제 교회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이 착하다는 칭찬과 함께, 중직자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청년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하세요. 이 청년이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잘 할 겁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지각을 하는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지각을 해서는 안된다,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딴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매 주일 청년 예배에 늦어 할레벌떡 뛰어 왔고,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아서 교

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들고 예배실에 들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다.

매년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자”는 모토를 걸고 교육 부서의 부흥에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외친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믿음도 없는 새신자에게 교사로 봉사하기를 요청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고, 더군다나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는 1-2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고, 교육부서는 장년들을 위한 운영 방침에 결들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니,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 앞을 지나가는데, “내일은 공짜”라는 안내문을 보고 신이 나서 다음 날 이발소를 찾아가서 공짜로 머리를 자르려고 했다. 이발소 주인은 “내일은 공짜”라는 같은 말을 하며, 그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에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람이 다음 날 이발소에 또 찾아가더니, 이발소 주인은 여전히 같은 말만 했다: “내일은 공짜.”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모토가 혹시 “내일은 공짜”와 같은 뜬구름 잡는 외침이 아닐까.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매년마다 외치지만, 목회의 중심은 항상 장년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력과 에너지와 재정이 교육부 보다 장년부에 훨씬 더 많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을까.

굳이 루소의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말이나, 아인슈타인의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에 있다”는 말, 심지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실제 없이 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교회 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은 새롭게 이사 갈 지역의 학교 수준이 어떤지 확인한다. 학군은 좋은지, 학생들은 어떤 인종인지, 선생님들의 수준은 어떤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신앙으로 교육받는 교회 교육에는 그다지도 무심한지 안타깝다.

교육학자 콜만(Coleman)은 이렇게 말한다: “학생당 교육비, 소장 도서 수, 시설 그리고 교육과정 등의 차이는 학업 성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사의 특징이 학교의 모든 측면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교회 교육과 관련된 말로 바꾸면 이렇다: “교육부서의 예산, 예배게 꾸민 예배실, 다양한 교육 도구, 그리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 등의 차이는 신앙의 성숙 및 발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사의 특징이 교회의 모든 측면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학생의 신앙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유치부 담당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고, 중고등부 담당 강도사로 발령을 받았고,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되었고, 결국 장년부 교구 목사가 되었다. 이러니 교회 교육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획기적으로 담임 목사가 교회 교육 담당 목회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어렵까.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곧 교육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이다.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채 매주일 반복적으로 시간만 때운다거나, 지속성을 가지 못하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 교육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자리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자”는 말을 하면서 말이다. 누군가 말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엔지니어 없이 프로의 소리를!

- ❖ 1년에 4회 정기방문
- ❖ 연간 2회 무료 방문
- ❖ 음향기기 이력관리
- ❖ 기술상담 및 교육

2. 교회 방문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 ❖ 스피커 분석 및 세팅
- ❖ 장비 업그레이드 상담
- ❖ 유튜브 기술 상담
- ❖ 음향, 영상, 조명 설치

3. Solo시스템

태블릿 하나로 예배준비 끝!

- ❖ 모든 교회에 설치가능
- ❖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 ❖ 강단에서 음향, 영상, 조명을 컨트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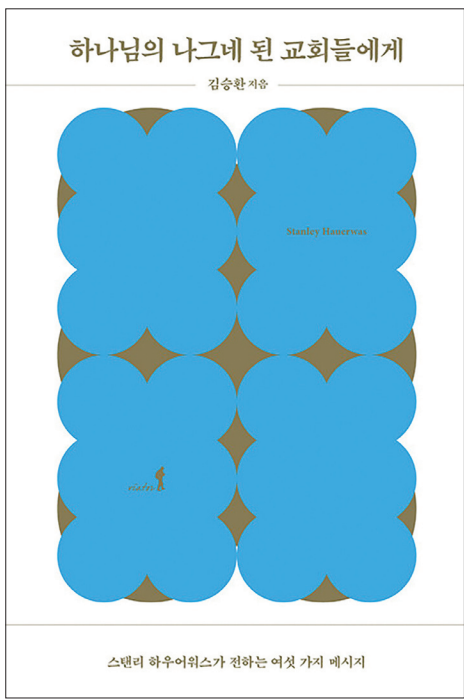
4. 상담 및 교육

비싼 미디어장비 제대로 활용하자!

- ❖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유지, 관리비용절감
- ❖ 고장 발생시 신속처리
- ❖ 미디어 사용법 교육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예수님의 이야기

탈교회 시대 속,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김승환
비아토르 | 212쪽

탈교회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스탠리 하우어워스에게
배우는 교회됨의 의미
잃어버린 교회의 원형을 찾고
교회의 토대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시도

나가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저 이를 말함으로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덕을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요새 주목받는 공공신학의 접근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시도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교회를 맞추려는 시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교회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교회다움이 각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신실한 제자 됨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대가 주장하는 각 개인으로 살아가고 성공해야 한다는 세속의 신화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를 추구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진정한 좋은 성품은 탁월한 사회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각 개인들이 서로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공신학도 교회의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 복음과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것을 세속적 언어와 기준으로 증명하려 하기에 결국 하나의 세속종교로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된다고 말한다. 공공신학이 말하는 충성된 제자도도 세속적인 수준 있는 시민 의식으로 대치하는 잘못된 시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정체성의 드러냄은 콘스탄티누스주의처럼 체제와 시스템을 통한 국가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교회가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존재나 역할이 아니다. 교회 없는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교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도 어떤 운동을 넘어 과정 안에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그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아주 느낄 수밖에 없다.

예로 들었던 것처럼 장애인들과 식사할 때 그들의 식사 속도에 맞추는 것은 아주 느리고 답답하게 여겨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여정의 속도는 군인의 속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속도에 맞춰야 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공공신학을 교회의 책무로 여기는 것은 결국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 곧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 세례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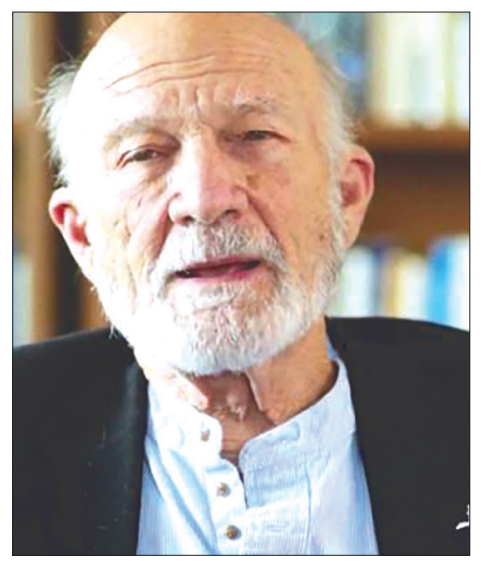
찬은 진정성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저자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를 통해 탈교회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그 길을 제시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고민에 대한 하나의 도움을 더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이 고민을 위해서는 이 책에서 계속 제기하는 공공신학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이 시대 상당히 주목받는 공공신학이 그저 교회에 한때 부는 일시적 시대의 바람일지를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공공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추신: <하나의 아이>에도 나타나지만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성추문으로 논란을 겪는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듯하다.

신학자의 신학적 성취와 그 인격적 문제와 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더에 대해 좀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유튜브

분명한 언급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필자가 그의 책에 과문(寡聞)함에서 오는 무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문양호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행동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피고 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전도서 7:14



2023. 05. 14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no one can discover
anything about their future.
ECCLESIASTES 7:14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김주환, 한 편의 드라마 만들어가는 세상

“공동체 속 공감 스위치 작동시킬 때, 위기는 축복으로”

〈삶- 축제〉, 수많은 군상 정교하고 수준 높게 완성 인물 형상 오려붙이는 작업 30여 년 전부터 지속해 그에게 축제란 숙제나 계산 등 멈추고 영혼의 긍정 군집으로 소통과 어울림 표현, 힘 되는 공동체 가치

김주환의 그림을 주목하게 된 것은 2017년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을 찾았을 때였다. (물론 그전에도 작가는 동일한 주제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화면의 수많은 군상을 정교하고 수준 높게 완성시킨 것이 꼭 인상적이었다. 그가 성실한 작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전시로 작가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근 몇 년 사이 그동안 재직하였던 교직에서도 퇴직하고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사하는 등, 신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근작을 관람할 기회가 생겼다. 경북 예전 신품미술관(2022. 7. 19- 8. 19)에서 열린 개인전에는 양평 서종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신작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매일 오늘을 만난다. 먹고 잠을 잔다. 말하고 침묵하고 울고 웃기도 한다. 다양한 만남을 경험한다. 호흡하면서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각양각색의 무늬를 띠는 삶을 표정을 ‘삶-축제의’ 놀이마당인 화면으로 초대한다.”(작가 노트)

김주환이 〈삶- 축제〉를 테마로 작업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인물 형상을 오려붙이는 작업을 근 30년 가까이 지속해 왔으니 말이다.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이 테마를 고수해 오지 않았나 싶다.

그에게 ‘축제’는 숙제나 계산 등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축제에는 목적이 없다. 우리는 축제가 열리는 동안 정신 없는 일상과 일의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영혼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준다.

그의 작업 과정은 바탕과 표면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작가가 작업을 할 때 바탕을 구축하는데, 이때는 스톤미디어를 붙이거나 물감을 흠뿌리는 독특한 수법을 사용하여 화면에 표정을 준다. 바탕이 오래된 암석이나 토양처럼 자연스럽다.

인체 이미지가 두드러진 표면은 일일이 가위로 오려낸 것으로 각 인물의 동세와 움직임이 다르다. 작가는 이들을 ‘노니는’ 사람들로 부르는데, 수많은 인체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힘들지 않느냐고 하자 오히려 즐겁다고 한다.

김주환은 인체 이미지를 나타낼 때 관화의 실스크린 기법처럼 전에 물감을 투과한 후 남겨진 부분을 살리는 수법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밋밋하던 배경에 표

정을 붙여넣은 등의 미세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새롭게 관목과 숲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양평으로 이주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외견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의 〈삶- 축제〉와 현재의 〈삶- 축제〉가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도처에 모여 있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바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우리는 화면의 정황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에서 여러 인물들은 무개성(群像)처럼 보이나, 실은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움직임을 취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숨은 그림을 찾듯이 이야기를 찾아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화면을 보면, 주위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연주도 즐기고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요리하고 빨래를 널며 김장을 하고 화분을 가꾸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그런가 하면 공사장에서 일하고 출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의 모습,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이들도 눈에 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다. 말하자면 작가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셈이다. 별 것 아니게 여겨온 것들이 각별하게 다가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을 맘 편히 만날 수 없었다. 반면 온라인 네트워크와 SNS의 발달로 점점 더 비대면 소통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해도, 그것이 직접적 만남의 장점을 대신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는 전달할지 모르나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결까지는 전달하기 어렵다.

작가는 군집(群集)의 형태를 빌어 소통과 어울림을 말하고 싶다고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표상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키우도록 북돋아주는 것 같다.

한국 사회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 중 하나는 ‘능력주의’를 미덕으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



김주환, 〈삶- 축제(Life-Festival)〉, 145.5x227.3cm, Mixed Media, 2022.



김주환, 〈삶- 축제〉부분.

는 대신,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출세를 주문하였다.

관계와 공감능력보다 과업을 얼마나 괄목할 만하게 완수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로 인해 개인화는 거침없이 축진된 반면 ‘함께 하는 삶’으로 부터는 점점 더 멀어졌다.

김주환의 작품은 ‘함께 하는 삶’을 지지한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즐기기도 한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시간을 같이하면서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 삶이 멈춘 자리에서만 이웃의 동정을 살필 수 있다. 상대와의 대화와 표정을 통해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는 능력일 것이다. 우리 삶의 교차로에는 슬픔과 고난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지만, 만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해 주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존 던(John Donne)의 시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다”(“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중에서)라는 말처럼, 우

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에 속해 있으며 ‘대양’에 속해 있다.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가 알려진 대로 세상의 선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역사에 남지 않는 보편적 행위들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드러나지 않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덕분인지 모른다.

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작가는 우리 삶이 어떤 위기를 맞더라도 ‘축제’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공감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리라.

주어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일컫는 ‘축제’라는 효소가 작품의 의미 내용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이웃에 대한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더욱 배양시켜 주는 듯하다.

그의 작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김주환에게 타인을 익명의 객체로 보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요컨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고락을 같이하며 밋진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의 작품의 요체이다.

일상의 굴레에 갇혀 종종 놓쳤던 문제로부터,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 발상이 참으로 매력적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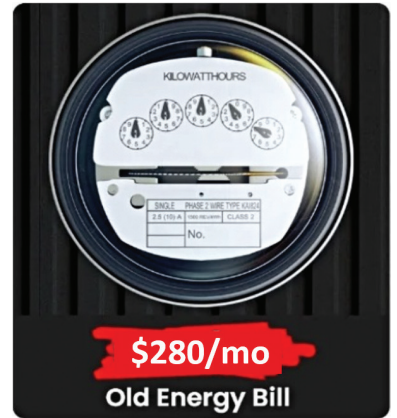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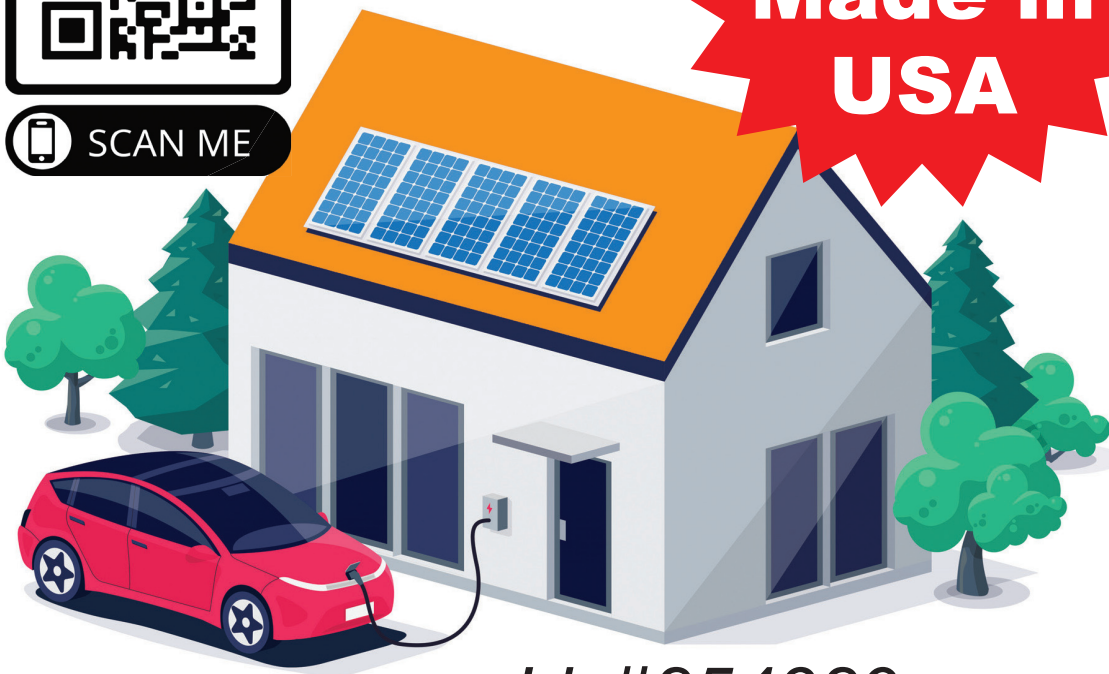
전기세가 11달러?!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